

11월 IT수출 36.5% 증가, 무역수지흑자 62.4억 달러 기록

11월 IT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6.5% 대폭 늘어난 117.3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IT산업은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는 수출을 기록하였고 IT 무역수지는 10월에 이어 60억 달러가 넘는 62.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산업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였다.

반도체 수출은 PC시장 회복과 국내업체 주도의 DDR3 채용비중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82.2% 증가한 35억 달러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호조세를 보이며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제품별로 보면 DDR2보다 동작속도가 빠르고 전력소비가 적은 DDR3의 수요가 서버, 노트북 및 휴대기기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반도체는 PC시장 회복과 D램 자체의 제품 차별화(DDR3 등)가 주요 수출 견인요소가 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반도체 수출의 주요 견인요소로 관심을 모았던 윈도우7 출시('09.10.22)는 윈도우7의 높지 않은 하드웨어 권장사양으로 인해 D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패널 수출은 대만 및 일본 업체의 가동률 증가로 가격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확고한 고객 기반과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년 동월대비 34.9% 증가한 24.9억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9%증가한 24.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신흥시장을 겨냥한 해외 생산 비중확대로 수출은 다소 정체된 상태이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휴대폰 세계 시장 점유율(% , SA '09.11): ('08) 25.3→('09.1분기)27.9→(2분기)30.1→(3분기)31.6

국가별은 글로벌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중국(홍콩 포함)이 전년 동월대비 49.8% 증가한 50.4억 달러, 대양주는 24% 증가한 0.8억 달러, 중남미는 75.3% 증가한 6.3억 달러로 신흥 시장은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미국은 15.4% 증가한 13.6억 달러, EU는 16.7% 증가한 17억 달러, 일본은 20.7% 증가한 6.4억 달러로 선진 시장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는 전년 동기(월)대비)

구 분	2009년				2008년				
	11월		1~11월		11월		1~11월		
수출	전체 산업	342.7	(18.8)	3,283.1	(Δ16.9)	288.4	(Δ19.5)	3,948.9	(16.7)
	IT 산업	117.3	(36.5)	1,097.1	(Δ12.0)	85.9	(Δ32.6)	1,246.5	(4.4)
수입	전체 산업	302.2	(4.7)	2,904.9	(Δ28.9)	288.5	(Δ15.0)	4,087.0	(26.6)
	IT 산업	54.9	(17.7)	563.4	(Δ18.7)	46.7	(Δ29.3)	693.1	(9.2)
무역	전체 산업	40.5		378.2		Δ0.1		Δ138.1	
수지	IT 산업	62.4		533.7		39.3		553.4	

한편, IT수입은 전자부품 31.7억 달러, 컴퓨터 및 주변기기 6.4억 달러, 무선통신기기(부분품 포함) 4.2억 달러 등 주요 품목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7.7% 증가한 54.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IT산업은 적극적인 투자와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패널, 휴대폰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회복 및 확대에 힘입어 2009년 IT수출은 1,200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무역수지

는 작년 576억 달러를 넘어선 59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반도체 : 35.0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80.2% 증가

반도체는 메모리 수출 증가로 80.2% 증가한 35.0억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 하였다.

D램 수출은 수요 제품 다변화(스마트폰용, 서버용 등) 및 DDR3의 채용비중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141.1% 증가한 12.4억 달러 기록하였으며 낸드플래시는 가격 안정과 스마트폰, SSD(Solid State Drive), 메모리카드 등 전방 산업의 수요 견인으로 전년 동월대비 78.0% 증가한 2.0억 달러 기록하였다.

지역별로 일본(2.0억 달러, Δ8.0%)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국(홍콩포함, 18.3억 달러, 133.5%), 미국(2.7억 달러, 83.7%), EU(2.5억 달러, 108.7%) 높은 수출 증가 기록하였다.

【 반도체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11	'12	'09.1	2	3	4	5	6	7	8	9	10	11
반도체	19.4	15.3	15.0	15.4	18.1	21.1	24.0	25.2	27.0	28.8	32.1	34.4	35.0
	(Δ44.1)	(Δ49.9)	(Δ46.9)	(Δ40.6)	(Δ38.4)	(Δ26.2)	(Δ22.1)	(Δ23.0)	(Δ15.6)	(Δ7.2)	(9.2)	(36.7)	(80.2)
메모리	9.1	7.3	7.2	7.9	8.7	9.8	11.5	12.4	13.3	14.7	16.0	17.8	19.4
	(Δ50.3)	(Δ53.8)	(Δ48.9)	(Δ42.4)	(Δ45.2)	(Δ37.6)	(Δ32.8)	(Δ28.9)	(Δ23.3)	(Δ12.7)	(10.5)	(56.0)	(114.1)
D램	5.1	4.8	4.4	4.4	5.0	5.3	6.3	6.9	8.1	8.7	9.3	10.5	12.4
	(Δ31.7)	(Δ29.4)	(Δ36.8)	(Δ38.5)	(Δ41.2)	(Δ37.4)	(Δ34.0)	(Δ33.5)	(Δ25.0)	(Δ20.6)	(9.6)	(69.1)	(141.1)
낸드	1.1	0.8	1.0	1.1	1.3	1.4	1.7	1.6	1.6	2.0	2.1	2.4	2.0
	(Δ66.4)	(Δ76.5)	(Δ65.4)	(Δ60.2)	(Δ42.5)	(Δ37.6)	(Δ30.6)	(Δ31.9)	(Δ31.5)	(Δ2.4)	(24.5)	(86.1)	(78.0)

* 메모리반도체에 메모리 MCP 포함

휴대폰(부분품 포함) : 24.7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9% 증가

휴대폰은 신형시장 진출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생산 비중 확대로 수출은 다소 정체된 상태이다.

국내 업체는 폴더치폰, 고화소 카메라폰, 스마트폰 등 프리미엄 제품 확대와 유통망 확대를 통한 신형 시장 공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이 향상되었다.

*휴대폰 시장점유율(% , SA '09. 11): ('08)25.3→('09.1분기)27.9→(2분기)30.1→(3분기)31.6

지역별로 부분품 중심인 중국(홍콩포함, 7.3억 달러, 10.2%) 수출은 '09.5월 이후 6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었고, 일본(0.9억 달러, 138.2%)은 국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힘입어 6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한편, 미국(5.9억 달러, Δ8.0%), EU(5.9억 달러, Δ5.6%), 중남미(0.8억 달러, Δ23.4%) 수출은 감소율이 완화되었다.

【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11	'12	'09.1	2	3	4	5	6	7	8	9	10	11
금액	24.0	16.3	21.9	23.7	23.9	24.4	24.9	25.1	26.2	22.8	25.1	25.8	24.7
(증감률)	(Δ25.5)	(Δ17.4)	(Δ21.7)	(1.4)	(Δ21.3)	(Δ18.4)	(Δ11.1)	(Δ7.4)	(Δ11.4)	(Δ18.0)	(Δ22.6)	(Δ31.3)	(2.9)

패널(부분품 포함) : 24.9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34.9% 증가

패널 수출은 대만 및 일본 업체의 가동률 증가로 가격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국내업체는 확고한 고객 기반과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년 동월대비 34.9% 증가한 24.9억 달러,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LCD 가격(TV용 Full HD, 42인치, \$): ('09.3)323→(4)320→(5)320→(6)333→(7)350→(8)350→(9)350→(10)348→(11)340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26.7%), 멕시코(107.2%), 브라질(348.1%), 폴란드(78.4%) 등 주요 생산거점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11	12	'09.1	2	3	4	5	6	7	8	9	10	11
금액	18.5	12.3	12.4	15.0	19.4	20.2	21.1	22.4	25.0	25.5	26.3	26.6	24.9
(증감률)	(△18.6)	(△41.2)	(△40.8)	(△24.1)	(△12.7)	(△8.6)	(△7.2)	(4.0)	(5.1)	(7.8)	(4.1)	(10.3)	(34.9)

칼라 TV(부분품 포함) : 4.6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00.4% 증가

칼라TV수출은 LCD TV와 TV부분품 수출이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전년 동월의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100%가 넘는 수출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국내 업체는 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지속적 출시와 주요 유통 채널에서의 판매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였다.

* 평판TV 시장점유율(매출기준, %) : ('06)25.0→('07)28.9→('08)33.8→('09.3Q누적)35.4

*LCDTV가격(42인치, \$):('09.3)926→(4)961→(5)983→(6)985→(7)994→(8)1,187→(9)1,075→(10)1,020→(11)1,040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36.7%), 멕시코(393.5%), 폴란드(92.5%), 헝가리(98.4%), 인도(50.5%) 등 주요 생산거점에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칼라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11	12	'09.1	2	3	4	5	6	7	8	9	10	11
칼라TV	2.3	2.1	2.8	3.4	4.4	4.8	3.9	4.1	4.5	4.4	5.4	4.9	4.6
(부분품 포함)	(△59.9)	(△60.4)	(△48.7)	(△38.8)	(△28.7)	(△18.6)	(△26.7)	(△22.5)	(△18.6)	(△8.8)	(△2.6)	(10.0)	(100.4)
LCD TV	0.5	0.3	0.3	0.3	0.4	0.4	0.5	0.5	0.5	0.4	0.5	0.6	0.6
	(△9.8)	(△47.2)	(△47.0)	(△33.3)	(△36.8)	(△29.7)	(△27.3)	(△2.0)	(△35.3)	(△20.9)	(△12.5)	(28.9)	(37.3)
PDP TV	0.2	0.2	0.2	0.2	0.2	0.2	0.4	0.3	0.2	0.2	0.2	0.2	0.2
	(△48.4)	(△39.6)	(△27.0)	(△20.8)	(△34.2)	(△12.4)	(6.3)	(△26.9)	(△18.4)	(△10.3)	(△29.2)	(△23.8)	(43.0)
TV	1.7	1.5	2.3	2.8	3.7	4.1	3.1	3.3	3.7	3.8	4.5	4.0	3.7
부분품	(△66.0)	(△64.4)	(△49.8)	(△40.3)	(△27.5)	(△17.7)	(△28.6)	(△24.2)	(△15.2)	(△7.2)	(1.6)	(11.1)	(123.8)

중국(홍콩 포함) : 50.4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 대비 49.8% 증가

반도체(18.3억 달러, 133.5%) 및 패널(14.5억 달러, 26.7%)의 수출 호조에 휴대폰(7.3억 달러, 10.2%)이 증가세로 돌아서 5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TV부분품(0.4억 달러, 39.7%)을 비롯하여 프린터(0.2억 달러, 55.6%), HDD(0.5억 달러, 70.5%) 등의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對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11	12	'09.1	2	3	4	5	6	7	8	9	10	11
금액	33.6	23.2	24.8	29.9	33.9	36.5	37.5	41.4	46.1	46.8	51.4	51.4	50.4
(증감률)	(△29.0)	(△42.6)	(△39.8)	(△10.7)	(△23.5)	(△16.7)	(△13.6)	(△4.8)	(0.7)	(3.8)	(11.2)	(14.4)	(49.8)
중국	25.2	17.7	18.7	23.5	27.4	29.0	29.5	32.4	36.1	36.5	40.4	39.8	39.0
	(△31.0)	(△43.2)	(△43.6)	(△12.6)	(△22.9)	(△16.9)	(△14.2)	(△5.2)	(2.3)	(4.7)	(14.0)	(14.6)	(54.6)
홍콩	8.4	5.5	6.1	6.4	6.6	7.4	8.1	9.0	10.0	10.2	10.9	11.6	11.4
	(△22.3)	(△40.5)	(△24.0)	(△3.2)	(△26.0)	(△16.0)	(△11.4)	(△3.3)	(△4.4)	(0.6)	(1.9)	(13.9)	(35.5)

미국 : 13.6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5.4% 증가

휴대폰 수출(5.9억 달러, →8.0%)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2.7억 달러, 83.7%), 패널(0.8억 달러, 61.6%) 등 전자부품 수출은 50%가 넘게 증가하였고 또한, 프린터(0.3억 달러, 30.5%), 셋탑박스(0.2억 달러, 455.2%), 모니터(0.3억 달러, 17.4%), HDD(0.1억 달러, 46.4%), TV(0.2억 달러, 28.1%) 등의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 보였다.

【對미국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11	12	'09.1	2	3	4	5	6	7	8	9	10	11
금액	11.8	9.8	11.8	12.5	12.4	14.3	14.5	14.0	14.5	13.0	13.3	13.6	13.6
(증감률)	(△21.3)	(△16.1)	(△7.0)	(4.3)	(△20.2)	(△15.0)	(1.7)	(△3.1)	(△8.5)	(△9.3)	(△15.8)	(△17.0)	(15.4)